영화 '위대한 침묵' 조용한 흥행

프랑스 수도원 수도사 일상 그린 다큐
19년 공들여 촬영 162분 간 대사 없어
광주극장 관람객 몰려…전북서도 발길

162분 동안 침묵과 고요만이 흐른다. 대사도 거의 없고, 음악도 없다. 낮은 기도 소리와 성가 소리, 종소리….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는 소리.

수도사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위대한 침묵'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위대한 침묵'은 14일 현재 전국에서 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조용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다큐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흥행이다

'위대한 침묵'은 지난해 서울 씨네코드 선재에서 단관 개봉했었다. 이후 상영관을 조금씩 늘려 현재 전국 8개관에서 상영중이다.

반면 800만명을 동원한 '아바타'와 500만명을 향해 달려가는 '전우치'는 각각 665개와 575관(13일 현재)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31일 광주극장에서 단관 개봉했고 매일 한차례씩 상영중이다. 13일까지 다년간 관객은 1천여명.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주, 익산 등 전북 지역에서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반복 관람하는 이들도 많다

수도사들에 관한 영화이다 보니 주관객층은 아무래도 천주교 신자들이다. 천주교광주대교구가 발행하는 주보에 영화 소개가 되면서 신자들과 신부, 수녀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에는 김희중 대주교가 신부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다.

또 신년을 맞아 자신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속도와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새기려는 이들이다.

'위대한 침묵'은 해발 1천 300m 알프스 깊은 산중에 위치한 봉쇄 수도원 카르투지오 수도사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1084년에 설립된 카르투지오는 가톨릭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수도회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며 일체의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카메라를 잡은 독일의 필립 그로닝 감독은 처음 수도원을 촬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난 후 무려 19년의 세월이 지나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6개월 동안 수도사들과 생활하며 그들의 일상을 앵글에 담았다.

한 젊은 수도사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조용히 수도사들의 침묵 수행과 그들의 자급자족하는 일상을 따라간다. 인위적인 소리가 없는 대신,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을 주는 영화이기도 하다. 수도원이 자리잡은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광 역시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수도사들의 삶을 다루고, 영화 중간 성경 구절이 삽입되는 등 영화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구절은 많은 것을 놓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162분에 이르는 러닝타임, 대사가 거의 없는 다큐멘터리라는 점 등이 관람하는 데 다소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주는 흔지 않는 영화다.

매일 상영시간이 다르니 광주극장(http : //cafe.naver.com/cinemagwangju)홈페이지를 확인할 것. 천주교 주보를 지참하면 1천원씩 할인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정희 청나라 수도 연행 200년 특별전

열 개의 눈으로 추사를 보다

서울 관훈동 화봉갤러리
글씨·탁본·관련 인물 등
3월 1일까지 210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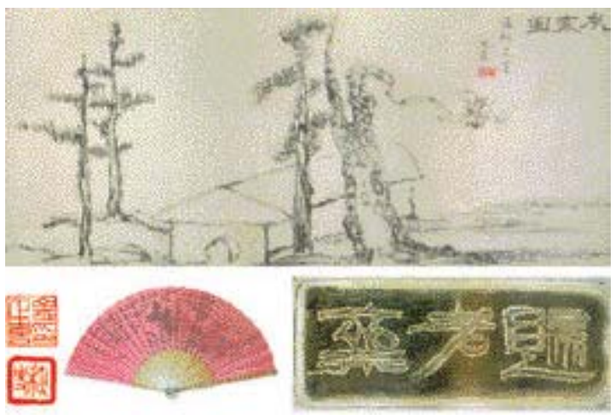

사진 위 '세한도' 영인본, 아래 왼쪽부터 인장, 소치 허련의 '선면소경', 귀로재 탁본 횡액.

올해는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청나라 수도인 연경(지금의 베이징)을 다녀온 지 200년이 되는 해다.

추사는 1809년 10월 28일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부사(副使)인 부친 김노경의 수행원으로 한양을 출발해 이듬해 3월 17일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는 옹방강 등 당대의 거목들과 교류하면서 금석학·경학·서화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서울 관훈동 화봉갤러리가 오는 3월1일까지 '추사를 보는 열 개의 눈' 전을 연다.

추사의 연경 방문 2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고서적 컬렉터인 여승구 화봉책박물관장이 모은 자료를 선보이고, 은행원 출신의 추사 전문가인 박철상 '그림과 책' 공동대표가 해설을 맡았다.

추사의 글씨나 탁본, 소장 서적을 비롯해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 남긴 자료 등 210점이 전시된다.

또 지난 2006년 도난당했다가 최근 되찾은 전주 한옥마을 학인당 현판 탁본, 추사가 손수 탁본을 떴다는 기록이 있는 '백월비(白月碑) 탁본첩' 등도 함께 선보인다. 백월비 탁본첩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조형미가 뛰어난 김해 김씨 김기종의 재실 현판 '歸老齋(귀로재)'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 입장료는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02-737-005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동문화재단 창작스튜디오 개설

청년작가 지원 … 금남로에 '대동 아트스튜디오'도

격월간 문화잡지 '대동문화'를 펴내고 있는 대동문화재단(회장 조상열)이 청년 작가 지원을 위해 창작스튜디오를 열었다.

이번 창작스튜디오 개설은 청년 작가 육성 프로그램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 화단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대동문화재단은 "국공립 미술관을 제외한 이 지역 문화 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3월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에 '대동 아트스튜디오'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대동 아트스튜디오'는 2년 동안 입주 작가들에게 무료로 작업실, 영상스튜디오, 공동실기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창작 워크숍,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전국 문화유산 답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곁들여진다.

입주작가들은 자유롭게 작업을 하는 대신, 대동문화재단과 합의한 창작품을 기증해야 한다.

25~40세 지역작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오는 2월25일까지 입주신청서, 도록,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면 한다.

조상열 회장은 "광주에는 젊고 유능한 작가들이 많지만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작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이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작가들을 위한 입주 프로그램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양산동·팔각정 스튜디오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대인시장 프로젝트 등이 있다. 문의 062-461-15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3회 호남 문화포럼

내일 히딩크호텔서

호남지역 역사·철학·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진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호남문화원(원장 이현채)이 16일 오전 11시20분 광주시 동구 불로동 히딩크호텔 6층에서 '제3회 호남 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비엔날레이사장, 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을 지낸 김포천(76·사진)씨가 '국창 임방울의 생애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한편, 호남문화원은 3월 초 '호남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이후에는 호남가비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62-232-86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 오거리 문화·예술의 산실 부활

미술인 28명 '오거리문협' 창립 … 1천명 목표 회원 모집

1970~80년대 목포의 문화, 예술의 산실이었던 오거리가 다시 화려한 비상에 나섰다.

목포 지역 미술인 28명은 지난해 12월 초 오거리 문화예술협회를 창립하고, 오거리 상인과 주민, '오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천명을 목표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살구꽃이 피는 산골과 어촌에 들어선 전형적인 문화마을이 아닌 도심 속 문화마을을 꿈꾸고 있다.

실제로 그림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사랑받는 오거리 문화센터 주변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중인 중견 화가들의 개인 화실을 비롯해 갤러리, 미술학원, 화랑 등 30여 곳이 둥지를 틀고 있어 이미 문화마을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다.

장근헌 오거리문협 회장은 13일 "70~80년대 오거리의 선술집과 다방, 화랑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사랑을 받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점차 쇠락해 버렸다"면서 "이제는 오거리 문화·예술의 부활을 통해 오거리의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을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첫 시도로 오거리문협은 오는 16일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오거리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다.

시민과 함께 할 이번 행사는 농악대의 '길닦음'을 시작으로 살풀이, 북춤, 색소폰 연주, 목포를 주제로 한 한국화 서양화, 서예, 도자기 작품 전시와 함께 즉석 경매 행사도 이어진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